

부모화, 성인애착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 관련변인의 구조모형 검증*

송 은 주

이 지 연¹⁾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기 위해 가족체계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Shannon(2014)의 질적 연구에서 발견한 부모화 관련 변인과 부모화 이론적 체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애착요인 특히 성인애착요인을 추가하여 이 변인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초기 성인기 남녀 576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부모화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났다. 첫째, 심리적 부모화에 의해 애착불안이 형성되어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성관계 만족이 낮아지는 경로, 둘째, 심리적 부모화에 의해 애착회피를 형성하여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제외한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성관계 만족을 낮게 만드는 경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화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애착의 형태에 따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성관계 문제로 어려워하는 내담자 상담의 임상적 함의를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화, 성인애착,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성관계 만족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1) 교신저자 :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E-mail: becoming@incheon.ac.kr)

I. 서론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2014)에 따르면 전국 초혼 연령이 남자는 32.4세, 여자는 29.8세로, 10년 전 30.5세, 27.5세에 비해 매년 꾸준히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성인기에 이성교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연애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노익상, 2002) 이성관계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초기 성인기는 친밀감 형성에 필수적인 이성관계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Shiner & Masten, 2002).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 성인기에 친밀한 이성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두 가지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보았다(조현정, 2014).

먼저 친밀한 이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초기 성인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의 하나로, 이 시기에 친밀한 이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Erikson, 1968; Shiner & Masten, 2002). 이성교제의 과정을 통하여 개인은 남녀의 성역할을 학습하고 신체적·정서적 친밀감을 얻을 수 있으며(Hazan & Shaver, 1987),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는 상호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고 보다 높은 사회 적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김은지, 1997).

다음으로 이성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적인 이성관계는 개인의 행복감을 높여주며(Argyle, 1997; Demir, 2008), 심리적 안녕감과 신체적 건강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Koball,

Moiduddin, Henderson, Goseling, & Besculides, 2010; Stutzer & Frey, 2006).

이러한 관점 외에 가족발달 이론 및 다세대 가족체계론 접근에서는 성인초기의 이성관계가 개인 발달적,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가족 요인에 의한 세대전수적인 영향을 받으며, 한 세대의 커플관계가 그 다음 세대의 커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Rossi & Rossi, 1990). 이는 이 시기의 이성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밝히고 분석하는 일이 의미 있는 연구 과제 중 하나임을 말해 준다. 이에 따라 국외 연구자들에 의해 연인들이 관계 만족을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이러한 이성관계 질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과 가족체계 관점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인 심리내적 요소들은 가족체계 안에서 발달되고(Bradshaw, 2006), 부모와 맺게 되는 관계와 그 속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 구성 이외의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에서의 적응을 좌우한다는 점에서(전현수, 2013) 이성관계 질을 가족체계 차원에서 출발하여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족 안에서 자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좋은 나쁜든 궤적을 만드는 경험에 관여한다(Shannon, 2014). 특히 성장하면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특성은 일생을 두고 개인의 성장 발달과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경자, 2004).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가족체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 가족 내에서 자녀가 자신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을 철들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면서 아이에게 좋은 성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그러나 바람직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정태연, 류원정, 2003). 걱정 수준의 배려가 아닌 자신의 내적 욕구를 무시한 강박적 배려심은 비록 단기적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Boszormenyi-Nagy와 Spark(1973)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킨 자녀를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라 하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어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고 위로하는 상태를 부모화(parentification)라 하였다. 또한 부모화는 부모가 자신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아이를 통해 추구하려는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는 자녀수가 적어지고 사회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며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과도한 교육열을 보인다(조은영, 2004).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동일시적 차원을 넘어 동일체(oneness)적 관계라고 볼 정도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또한 측은지정(惻隱之情)을 주로 한 감정공동체적 관계 특성을 갖고 있어 한국 문화에서 부모화는 더욱 빈번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조은영, 2004).

이러한 부모화의 영향에 대해, Byng-Hall (2002)과 Elkind(1981)는 부모화 된 자녀는 경쟁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Hooper(2007)와 Shannon(2014) 역시 부모화의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화 된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만큼이나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Robinson, 2000), 겉으로 적응적인 기능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내면의 고통이 간과되기 쉬우므로 이들의 정신적 위험성은 누적되어 어느 한 순간 표출되기 쉽다. 그러므로 부모화 된 자녀들의 애어른 같은 철든 행동은 사회 적응적이라고 해서 그들의 심리적 위험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다(조은영, 2004).

Teyber(2011)는 외래를 찾는 내담자의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부모화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고, 그동안 부모화에 대한 많은 양적 연구를 통해 부모화 경험이 이후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화 된 사람은 과도한 걱정과 불안(Chase 2001; Jacobvitz & Bush, 1996), 우울(Katz, Petracca, & Rabinowitz, 2009; Martin, 1995), 의존에 대한 양가감정(Wells & Jones, 1998), 내적 감정 스트레스(Stein, Riedel, & Rotheram-Borus, 1999)를 경험하고, 이들은 강박적인 성취자이며, 끊임없이 타인을 통제

하거나 경쟁적,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이고(Matthews & Angulo, 1980),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에적 성격, 정신분열을 보이기도 하고(Wells & Jones, 2000), 사회적 소외감,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고(Byng-Hall, 2002), 초기 애착, 경계선 혼란(Chase, 1999)을 보인다. 이들은 또한 부모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서(Cole & Woolger, 1989)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여를 보이며(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낮은 수준의 대학생활 적응력(Berman & Sperling, 1991)을 보이기도 한다.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화 경험이 우울과 불안(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송은주, 이지연, 2010; 강지희, 최명선, 2009), 수치심(공인원, 2014; 김은영, 2009; 박현정, 2010; 신주연, 2003), 자아분화(김지인, 2014; 문은미, 최명선, 2008; 조혜정, 2013), 자아존중감(선진, 2013; 지미선, 김신영, 2011), 병리적 의존관계(신주연, 2003)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화 된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Thomas et al., 2003), 낮은 대인관계 수준(문비, 2006; 박현정, 2010; 선진, 2013; 양혜라, 2011; 지미선, 김신영, 2011;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와 같이 개인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친밀한 관계, 이성관계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부모화와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관계 연구(이선지, 2007), 이성교제 만족도 관계 연구(김노수, 2014)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성관계 형성은 초기

성인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심리사회적발달 과업의 하나로 이성관계 경험은 이후 단계에서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결혼 이후의 적응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Kelly, Huston, & Cate, 1985).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성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데 가족체계 차원에서 특히, 부모화가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Hooper(2007)는 애착이론과 가족시스템이론을 통합하여 부모화에 적용하였다. Hooper(2007)는 부모화가 한 사람의 개인, 가족, 지역사회 시스템 안에서 내적 작동모델을 만들고, 그 내적 작동모델에 의해 부정적,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초기 애착이 부모화의 선행 변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부모화가 성인애착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성인초기에는 초기애착 대상에서 전이가 나타나면서 대체로 이성 친구가 주요 애착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Weiss, 1982). 그런데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버려짐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자신의 애착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Barnett & Parker, 1998). King과 Emmons(1990)는 이와 관련된 현상을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으로 설명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강렬한 감정들은 애착관계의 형성과 유지, 혼란과 회복을 거치면서 일어나고(Bowlby, 1980), 애착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작동 모델은 정서적으로 반응해

야 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며(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정서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Kobak & Sceery, 1988). 이에 따라 그동안 애착과 정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정서를 표현하는 데 갈등이 많고, 정서경험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김정문, 2010; Searle & Meara, 1999)는 것이 밝혀졌다.

불안정 애착 중 애착회피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성향으로 인해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의 손상을 가져오고, 이들은 친밀감에 대한 편안함이 낮고, 분노, 슬픔 및 불안과 같은 세 가지 부정적 정서를 더 통제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거나 지지를 추구하는 것을 더 회피하고(Feeney, 1995), 정서를 약하게 느끼고 정서 표현을 적게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Searle & Meara, 1999). 따라서 애착 관계에서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주로 정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처리하기 때문에(Dozier & Kobak, 1992) 애착과 관련된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방어 전략을 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착불안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과잉 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감정 이면에는 상대방에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도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매달리는 행동을 보이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단서를 예민하게 지각한다. 이들은 안정과 보호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애착 대상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함을 느끼고, 상대방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한다(Mikulincer & Shaver, 2007). 즉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된다(전현수, 2013). 결과적으로 부모화를 통해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정서표현 갈등을 경험하고, 거짓 자기를 발달시켜 자신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친밀한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Shannon(2014)은 애착이론이 부모화를 보는 유용한 렌즈라고 하면서 애착과 부모화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했다. Shannon(2014)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부모화 된 사람들의 아동기와 성인기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각각 3가지 주제를 보고하였다. 각 주제는 아동기에는 ‘완벽주의 성향(failure is not an option)’, ‘어린 시절과 자신의 희생(sacrifice of childhood and self)’, ‘책임, 기대, 의무에 대한 이행(fulfillment loyalty, expectations and obligations)’, 그리고 성인기에는 ‘과기능(over-functioning)’, ‘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 유지(maintain loyalties and obligations)’, ‘관계취약성에 대한 회피(avoidance of relational vulnerability) 현상’이다.

각 주제와 관련하여 주제 속에 담긴 심리적 특징에 대해 애착 외에 부모화 관련 변인 3개를 다음과 같이 유추하였다. 첫 번째, 어린시

절 주제 중 완벽주의 성향은 조은영(2004)의 질적 연구에서 밝힌 부모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드러난 특징과 같은 결과이다.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희생, 책임, 의무에서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가족이 살아남는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실수하지 않는 것이 생존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Shannon, 2014). 이러한 노력으로 부모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되고,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문제를 보인다. 이들은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타인에게 친밀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한경희, 2012). 이렇게 국내의 질적연구에서 발견된 완벽주의 특성은 최명선과 강지희(2008)가 청소년의 아동기 부모화 경험이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부모화와 일반적인 완벽주의와의 관계를 밝힌 것이지만 김나영(2014)이 이성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 결과에 따라 부모화가 이성관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완벽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부모화가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어린 시절과 자신의 희생’과 ‘책임, 기대, 의무에 대한 이행’의 주제는 부모화된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압도되

어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면서 어린시기를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이 잃어버리는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또한, 성인기의 ‘과기능’과 ‘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의무감 유지’ 역시 충성심과 의무감으로 인해 과기능으로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고 정서억제하는 경험을 통해 도출된 주제이다. 즉, 부모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동기, 성인기 모두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기보다 참고 받아들이는 정서억제 경험을 하게 된다(Shannon, 2014).

정서의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이현아, 2011)을 보았을 때 정서의 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정서 그 자체의 기능에 역행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전현수, 2013). 정서 표현성과 개인의 적응 간의 관련성을 본 초기 연구들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형성과 관련이 높아서 정서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DePaulo, 1992), 정서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뿐 아니라 신체적 증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King & Emmons, 1990; Kring, Smith, & Neale, 1994). 그러나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 역시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Gottman, 1993; Jerome & Liss, 2005). 이와 관련하여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의 억제나 과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겪는 갈등이 특히 정서적 표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표현성 자체만이 아니라, 정서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사이의 갈등, 즉 정서표현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갈등으로 정의된다. 첫 번째 갈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면서 갈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서를 드러내놓고 표현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다(Emmons & Colby, 1995). 즉 정서표현은 억제나 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표현의 상황에서 상반된 감정을 느껴서 표현을 못할 때 경험되는 양가감정이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유주현, 2000).

이러한 정서표현 양가성과 부모화와 관련하여 전현수(2013)는 부모화 된 자녀는 부모화 경험을 통해 우수한 수행능력 같은 긍정적 영향에 강화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와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사이에서 정서표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현아(2011)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 요인 중 불공평성을 많이 지각할수록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불공평성을 높게 경험하는 집단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책임감, 불안, 불신, 분노와 화 등의 감정에 자유롭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며,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느끼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짐을 의미한다(문소희, 2014).

마지막으로 ‘관계취약성에 대한 회피 현상’이다. Shannon(2014)는 부모화된 성인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상

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회피하고 이성관계의 실패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은영(2004)이 부모의 위로자 역할을 하는 자녀들에게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특징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지만 정작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보살핌이나 배려를 받지 못하는 부모화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불공평함을 느끼기 쉽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Jurkovic, 1997), 항상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관계만 맺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은 받지 못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Barnett & Parker, 1998). 이는 즉, 앞에서 언급한 Shannon(2014)이 부모화 경험을 한 성인으로부터 얻은 주제 ‘관계취약성에 대한 회피’ 성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모화 경험과 성인애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hannon(2014)의 연구에서 얻은 부모화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과 관련된 6가지 주제를 통해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한 관계의 두려움 변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 만족이 배우자 선택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유지 및 갈등해결 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앞으로 상담 장면에서 개입방법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부모화 경험이 초기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를 예언하는 선행 변인이라 가정했을 때 성인 애착,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초기 성인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여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Havighurst(1972)는 초기성인기를 18-35세, Erikson(1956)은 21-40세(장휘숙, 2012), 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그리고 McKee(1978)는 17-40로 보았다. 본 연구는 Levinson 등(1978)의 발달단계에 따라 초기 성인기를 만 18-40세로 정의하고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미혼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 5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3개 대학, 4개 회사, 연구자 주변

의 지인 등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학력의 가진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실시 전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설문지에 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64부였으나, 연애경험이 없는 응답자 설문 81부와 불성실한 응답자 설문 7부를 제외한 576부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 대상자 중 여자가 366명(63.5%)으로 남자 210명(36.5%)보다 많았으며, 20대가 467명(81.1%)으로 30대 109명(18.9%)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연애경험은 현재 연애중인 사람이 308명(53.5%), 현재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268명(46.5%)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권정혜와 채규만(1999)은 Snyder(1979)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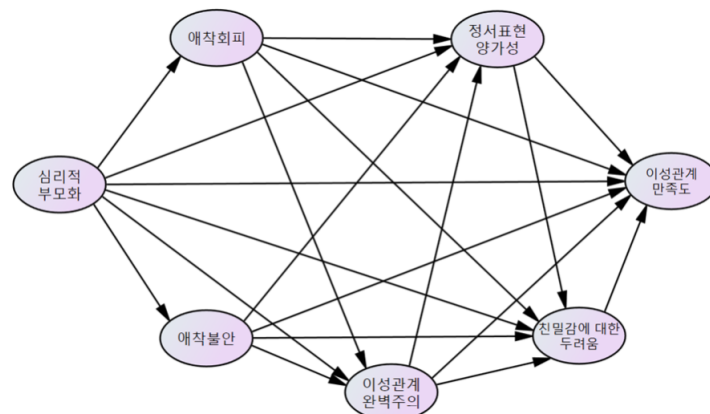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nventory: MSI)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 후 예비검사를 통해 표준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부분수정하고, 이를 다시 이복동(2001)이 요인분석으로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만족도 하위척도에서 미혼의 남·녀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전반적 불만족 16문항, 정서적 의사소통문제 7문항,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 12문항, 공유시간 갈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1문항이다.

이복동(2001)이 사용한 하위 명칭이 만족도를 측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불만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용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이복동(2001)의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값은 .75~.86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0~.88로 나타났다.

충성도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성인의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Jurkovic과 Thirkield(1999)가 PQ(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Sessions & Jurkovic, 1986)를 토대

로 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개발한 FRS-A를 조은영(2004)이 번안하고 전현수(2013)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을 살펴보는 총 6개의 하위척도로, 각 하위 척도당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과거에 해당되는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 20항목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전현수(2013) 연구에서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성 하위요인을 합쳐 '심리적 부모화'라고 재구성한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부모화 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경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Jurkovic 등(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본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는 .74~.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문항별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정서적 부모화는 .69, 불공평은 .86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 척도(Encounter in Close Relationship Scale-Revised, ECR-R)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의 개정판 성인용 친밀 관계의 애착척도(ECR-R)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R은 성인 애착의 양상을 긴밀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회피 수준을 각각 18문항으로 평가하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회피 수준이 높은, 불안정 애착 패턴을 가지

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가 애착불안은 .89, 애착회피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93, 애착회피 .89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K-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KRRPS)

본 연구에서는 Shea, Slaney와 Rice(2006)의 친밀한 관계의 양자간 완벽주의 척도(Dyadic Almost Perfect Scale: DAPS)와 Matte와 Lafontaine (2007)의 이성 관계 완벽주의 척도(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 RRPS)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된 한국형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KRRPS)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높은기준(5문항), 자기불일치(5문항), 타인높은기준(5문항), 타인불일치(7문항)의 4개의 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7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송은주(2016)의 연구에서 KRRPS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는 .81~.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6~.87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정서표현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갈등 질문지(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14문항), 관계-관여적 양가성(10문항)의 2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현정(201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87,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91로 나타났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Intimacy Scale; FIS)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척도(FIS)는 Descutner와 Thelen(1991)이 현재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나 앞으로 예상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심리적인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선영(2005)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전현수(2013)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5문항과 현재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30문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현재의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Descutner와 Thelen(1991)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과 AMOS 18.0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전반적인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각 변인별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검토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때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고, 측정변수는 부모화,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이성관계 만족도는 각 잠재변인의 하위 변인을 사용하였다. 또한 하위요인이 존재하지 측정변수 애착불안, 애착회피는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5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었다. 이는 모든 문항을 사용해서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추정모수의 수가 증가하여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체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잠재변수를 구인할 경우 한 개의 측정치로 잠재변수를 구인해야하기 때문에 모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잠재변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이 제안한 항목 묶기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수별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의 절대 값에 따라 각 문항별 순위를 매긴 후 가장 큰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작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으로 짝으로 묶어 순서대로 3개, 5개의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값 외에 표본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였고, 이외에 경쟁모형을 채택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AIC값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CFI와 TLI는 .90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08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셋째,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모화, 애착불안, 애착회피,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의 변수 간 계수 추정치, 전체 효과, 직접·간접효과와 각 변수들의 상대적 설명량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넷째,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의 제안에 따라 부트스트랩 절차를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절차는 모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576)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초자료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초자료와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 행렬

(N = 57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80**	1																	
3	.85**	.81**	1																
4	.83**	.79**	.81**	1															
5	.94**	.92**	.93**	.93**	1														
6	-.11**	-.04	-.12**	-.12**	-.10*	1													
7	-.29**	-.20**	-.26**	-.28**	-.28**	.53**	1												
8	-.24**	-.15**	-.22**	-.23**	-.23**	.85**	.89**	1											
9	-.41**	-.32**	-.36**	-.39**	-.40**	.22**	.38**	.35**	1										
10	-.33**	-.27**	-.28**	-.29**	-.31**	.02	.20**	.14**	.41**	1									
11	-.18**	-.07	-.10*	-.18**	-.14**	.18**	.13**	.18**	.20**	.08	1								
12	-.44**	-.27**	-.34**	-.43**	-.40**	.21**	.26**	.27**	.42**	.24**	.53**	1							
13	-.25**	-.22**	-.25**	-.29**	-.27**	.19**	.15**	.19**	.24**	.03	.41**	.27**	1						
14	-.56**	-.46**	-.53**	-.54**	-.56**	.14**	.28**	.25**	.44**	.21**	.24**	.43**	.51**	1					
15	-.48**	-.34**	-.41**	-.48**	-.46**	.24**	.27**	.30**	.43**	.19**	.74**	.74**	.76**	.73**	1				
16	-.39**	-.25**	-.36**	-.39**	-.37**	.26**	.28**	.31**	.63**	.37**	.24**	.42**	.24**	.36**	.42**	1			
17	-.20**	-.07	-.18**	-.18**	-.17**	.21**	.13**	.19**	.29**	.12**	.26**	.28**	.18**	.10*	.28**	.67**	1		
18	-.32**	-.18**	-.30**	-.31**	-.30**	.26**	.23**	.28**	.50**	.27**	.27**	.39**	.23**	.26**	.39**	.92**	.91**	1	
19	-.63**	-.56**	-.57**	-.58**	-.63**	.09*	.24**	.20**	.45**	.52**	.23**	.40**	.19**	.47**	.43**	.44**	.13**	.32**	1
평균	2.80	2.44	2.62	3.23	3.50	4.08	3.27	3.94	2.78	3.52	3.00	3.30	3.14	2.41	3.46	3.56	3.31	3.49	3.45
SD	.61	.71	.57	1.0	.86	1.14	1.09	1.22	1.09	.84	.67	.64	.60	.61	.64	.71	.62	.77	.63
왜도	.24	.24	.17	.21	.00	-.13	.10	-.09	.28	-.16	-.18	-.45	-.40	-.18	.13	-.20	.29	-.41	-.01
첨도	.02	-.41	-.20	-.15	.42	-.17	-.23	-.30	-.47	-.00	-.01	.60	.57	-.57	-.26	.16	-.08	.03	-.18

주. 1. 전반적만족 2. 정서적의사소통 3. 문제해결의사소통 4.공유시간 5. 이성관계 만족도 전체 6. 정서적부모화 7. 불공평 8. 심리적 부모화 전체 9. 애착불안 10. 애착회피 11. 자기높은기준 12. 자기불일치 13. 타인높은기준 14. 타인불일치 15.이성관계 완벽주의 전체 16. 자기방어양가성 17. 관계관여양가성 18. 정서표현 양가성 전체 19.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 $p < .05$. ** $p < .01$.

2. 연구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결과 χ^2 은 905.511($df = 209$, $n = 576$, $p < .001$), CFI는 .930, TLI는 .915, RMSEA는 .076(90% CI: .071~.081)으로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측

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은 심리적 부모화와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계에 애착회피, 애착불안,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매개하는 경로로 이루어진 모형이다 연구모형이 표본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χ^2 은 977.830($df = 210, n = 576, p < .001$), CFI는 .923, TLI는 .907, RMSEA는 .080(90% CI: .075~.085)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총 20개의 직접 경로 중 8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Martens(2005)의 제안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을 수정모형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은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다른 것이었다. Shiota, Campos, Keltner와 Hertenstein(2004)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에 기여하는 등 건강한 이성관계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여러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Gross & John, 2003), 결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Ben-Ari & Lavee, 2011; Mongrain & Verette, 2003)을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서자각과 표현,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장정주, 김정모, 2011),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은정, 2013; 조현정, 2014)결과를 얻었다. 또한 윤수지(2014)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요인과 이성관계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고, 윤달아(2012)는 정서표

현 양가성의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과 대인 관계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정서표현 양가성에
서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유
의미하지 않은 7개의 경로, 심리적 부모화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심리적 부모화에서 친밀
감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부모화에서 이성관
계 만족도, 애착불안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
움, 애착불안에서 이성관계 만족도 애착회피
에서 이성관계 완벽주의, 애착회피에서 이성
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모
형으로 설정하였다.

3. 수정 모형의 모수 추정

수정모형의 구조계수를 확인한 결과를 표 3,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계수를 보면, 심리적 부모화에서 애착불안으로 가는 경로($\beta = .44, p < .001$), 애착회피로 가는 경로($\beta = .25, p < .001$), 이성관계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beta = .20, p < .001$) 모두 유의미하게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에서 이성관계 완벽주의로 가는 경로($\beta = .48, p < .001$), 정서 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beta = .38, p < .01$)는 유의미하게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표 2. 연구모형,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χ^2	df	p	TLI	CFI	RMSEA(90%신뢰구간)	AIC
연구모형	977.830	210	.000	.907	.923	.080(.075-.085)	1155.830
수정모형	980.950	217	.000	.911	.923	.078(.073-.083)	1144.950

$\Delta df=7, \Delta \chi^2=3.12, p>.05$

표 3.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비표준화 계수	S.E.	C.R.	표준화 계수
심리적 부모화	→	애착불안	.73	.10	7.28***	.44
심리적 부모화	→	애착회피	.33	.07	4.69***	.25
심리적 부모화	→	이성관계 완벽주의	.28	.08	3.57***	.20
애착불안	→	이성관계 완벽주의	.40	.04	9.24***	.48
애착불안	→	정서표현 양가성	.30	.03	11.08***	.38
애착회피	→	정서표현 양가성	.14	.03	5.59***	.15
애착회피	→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30	.03	11.00***	.44
이성관계 완벽주의	→	정서표현 양가성	.15	.04	4.33***	.16
이성관계 완벽주의	→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30	.03	9.80***	.46
이성관계 완벽주의	→	이성관계 만족도	-.28	.03	-8.30***	-.41
정서표현 양가성	→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04	.02	2.37*	.07
정서표현 양가성	→	이성관계 만족도	.01	.02	2.23	.02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	이성관계만족도	-.46	.05	-10.2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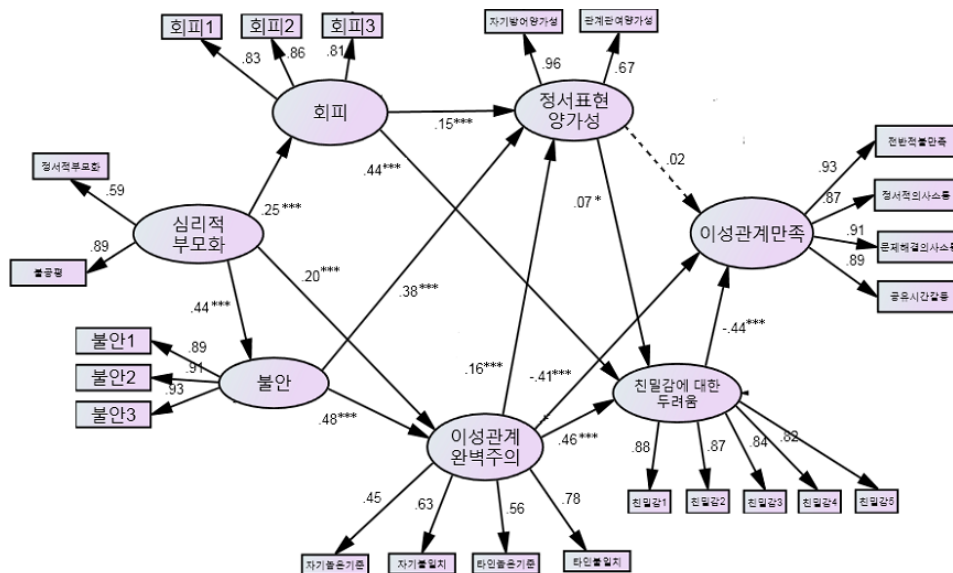
* $p < .05$. *** $p < .001$.

그림 2. 수정모형의 분석 결과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이고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 $p < .05$. *** $p < .001$.

타났다. 애착회피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beta = .15, p < .001$),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beta = .44, p < .001$) 역시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완벽주의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beta = .16, p < .001$),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beta = .46, p < .001$)는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성관계 완벽주의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beta = -.41, p < .001$)는 유의미하게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beta = .07, p < .05$)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beta = -.44, p <$

.001)는 유의미하게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경로($\beta = .02, p > .05$)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으로 검증한 직간접 효과의 추정치와 통계적 유의성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이외에 심리적 부모화에서 애착불안, 애착회피, 이성관계 완벽주의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애착불안에서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미치는 직접효과, 애착회피에서 정서

표 4.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와 통계적 유의도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CI (하한계, 상한계)
심리적 부모화	→ 애착불안	.44	.44***	
	→ 애착회피	.25	.25***	
	→ 이성관계 완벽주의	.42	.20***	.21** (.16 ~ .20)
	→ 애착회피→ → 애착불안→ → 애착불안→이성관계완벽주의→	.27		.27** (.19 ~ .37)
	→ 애착회피→ → 애착회피→정서표현양가성→ → 이성관계완벽주의→ → 애착불안→이성관계완벽주의→ → 애착불안→정서표현양가성→	.32		.32** (.22 ~ .41)
	→ 애착불안→이성관계완벽주의→ → 애착불안→이성관계완벽주의→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애착불안→이성관계완벽주의→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이성관계완벽주의→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이성관계완벽주의→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애착회피→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애착회피→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대한 두려움→	.31		-.31** (-.39 ~ -.22)
	→ 애착불안→이성관계완벽주의→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애착불안→이성관계완벽주의→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이성관계완벽주의→친밀감에대한 두려움→			
	→ 이성관계완벽주의→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대한 두려움→			

표 4.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와 통계적 유의도

(계속)

	경로		전체 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95%CI (하한계, 상한계)
애착불안	→	이성 관계 완벽주의	.48	.48***	
	→	정서표현 양가성	.45	.38***	.07** (.04 ~ .13)
	→이성 관계완벽주의→ →정서표현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25		.25** (.18 ~ .32)
	→이성 관계완벽주의→ →정서표현양가성→ →이성 관계완벽주의→정서표현양가성→				
	→이성 관계완벽주의→ →이성 관계완벽주의→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성 관계완벽주의→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성 관계 만족도	-.30		-.30** (-.38 ~ -.21)
애착회피	→	정서표현 양가성	.15	.15***	
	→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45	.44***	.01* (.00 ~ .02)
	→정서표현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성 관계 만족도	-.20		-.20** (-.26 ~ -.14)
이성 관계 완벽주의	→	정서표현 양가성	.15	.16***	
	→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47	.46***	.01* (.00 ~ .03)
	→정서표현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정서표현양가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성 관계 만족도	-.62	-.41***	-.21** (-.26 ~ -.15)
정서표현 양가성	→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07	.07*	
	→	이성 관계 만족도	-.01	.02	-.03* (-.06 ~ -.002)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	이성 관계 만족도	-.44	-.44***	

** $p < .01$. *** $p < .001$.

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치는 직접효과, 이성 관계 완벽주의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성 관계 만족도로 미치는 직접효과,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치는 직접효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 관계 만족

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간접효과에 있어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부모화가 이성 관계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데 7개의 매개경로(심리적 부모화→애착불안→이성 관계 완벽주의→이

성관계 만족도, 심리적 부모화→애착불안→이성관계 완벽주의→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성관계 만족도, 심리적 부모화→애착불안→이성관계 완벽주의→정서표현 양가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성관계 만족도, 심리적 부모화→이성관계 완벽주의→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성관계 만족도, 심리적 부모화→이성관계 완벽주의→정서표현 양가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성관계 만족도, 심리적 부모화→애착회피→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성관계 만족도, 심리적 부모화→애착회피→정서표현 양가성→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부모화는 애착불안, 애착회피,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성인기 남녀 576명을 대상으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가족체계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심리적 부모화로부터 애착불안, 애착회피,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변인으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다양한 변인들을 이어주는 가장 적절한 과정을 밝히기 위해 모형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부모화, 애착회피, 애착불안,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이성관계 만족도와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관 결과는 심리적 부모화를 경험할수록 애착회피, 애착불안,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이성관계 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Shannon(2014)이 질적 연구에서 밝힌 애착과 부모화의 관련성, 부모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부터 도출한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성관계 만족도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양적으로 확인하는 결과이다.

둘째, 심리적 부모화가 이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부모화에 의해 애착불안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이성관계 완벽주의,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성관계 만족이 낮아지는 경로와 심리적 부모화가 애착회피 수준을 높게 형성하여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제외한 정서표현 양가성,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성관계 만족을 낮게 만드는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적 부모화 경험을 통해 애착불안 수준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적응적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애착불안 형태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완벽해져야만 애착 대상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

여 파트너에게도 그러한 방법을 요구하고, 자신도 파트너로부터 완벽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성관계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일반 완벽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취약점이 공개되어 조롱, 거부 되는 것을 두려워해 결국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것(Halgin & Leahy, 1989)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면서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불안정 애착과 부적응적 완벽주의 간의 정적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장애경, 2006; Andersson & Perris, 2000; Rice & Mirzadeh, 2000)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또한 Burns(1983)는 “완벽주의자들은 그들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믿고, 그들은 부적절성을 드러내고 교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고, Martin과 Ashby(2004)는 취약성을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두려워하고, 결과로서 그들은 중요한 관계에 더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매우 높은 기준에 매달려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실패로 평가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Rice & Mirzadeh, 2000)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각한 부적당함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Martin & Ashby, 2004). 본 연구 결과에서 심리적 부모화 경험을 통해 애착불안을 높게 형성하고 이성관계 완벽주의 성향으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패턴은 이러한 주장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심리적 부모화를 통해 애착회피 수준이 높게 형성된 경우에는 이성관계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표현 양가성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즉,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를 보호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어야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자신의 애착 욕구와 정서를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이고(West & Keller, 1991), 이것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표상으로 연결되어 애착회피 성향으로 발달된다. 이들은 타인과의 거리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사용(Mikulincer & Shaver, 2007)하게 되면서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은 분노, 슬픔 및 불안과 같은 세 가지 부정적 정서를 더 통제하고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거나 지지를 추구하는 것을 더 회피한다는 것(Feeney, 1995)과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면, 애착회피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하였는데, 특히, 애착회피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보다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더 설명력이 크게 나왔다. 이는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착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은 정서를 약하게 느끼고 정서 표현을 적게 한다(Searle & Meara, 1999). 또한, 이들은 주로 정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처리하기 때문에 정서표현의

욕구를 느끼고 갈등하기보다 거리감을 최대한으로 하는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애착회피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애착회피가 직접적으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심리적 부모화는 이성관계 만족도에 두 가지 경로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이기 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심리적 부모화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윤수지, 2014)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부모화를 경험한 사람은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타당한 욕구 자체를 유지하고 의존적으로 여기고, 정당하게 성인으로 충족 받을 수 있는 애정이나 돌봄적 욕구를 갖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관계 안에서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건강한 이성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론(Teyber, 2011)과도 같은 맥락이다. 즉, 심리적 부모화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화 경험 이후 어떠한 애착을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어떠한 경험하느냐에 따라 이성관계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부모화 경험 자체보다는 이후 경험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특히 대인관계 사이에서 타

인을 보는 관점이 되는 성인 애착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심리적 부모화를 통해 형성된 불안정 성인애착 역시 간접적으로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인애착이 거부민감성과 외로움을 매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통합 매개 모형에서 애착회피, 애착불안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김윤영, 2010)과 같은 결과이다.

넷째, 심리적 부모화를 통해 성인 애착 중 애착불안이 높게 형성되었을 경우와 애착회피가 높게 형성되었을 경우, 약간 다른 경로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두 경로 모두 정서표현 양가성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이성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 사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밝힌 김정문(2010)과 전현수(2013)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

특히, 성인애착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불안이 애착회피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애착불안 성향이 높게 형성된 사람들이 정서표현성이 높고 과잉활성화 정서조율 전략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도 정서적인 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표현의 결과로 거부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전현수, 2013). 반면 애착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난 사람들이 애착의 정서를 의식·무의식적으로 억압하여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아(안명희, 2010) 정서표현에 대한 욕구 자체도 스스로

느끼지 못해 갈등하기 보다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착불안,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이 경험한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현수(2013)연구에서는 표준화계수 .25로 나타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계수 .07로 매우 적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원인에 대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김은정, 2013; 조현정, 2014)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Lavoe와 Ben-Ari(2004)의 연구에서 남편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부인의 정서표현 양가성은 결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남녀의 차이를 고려해 구분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요인이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연구들이 있다. 최혜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회피, 낮은 심리적 적응성, 낮은 자존감과 상관이 높고, 오히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이들과 상관이 없거나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최혜연, 민경환 및 이동귀(2008)의 연구에서는 관계관여적 양가성보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더 강한 부정적 정서표현 신념과 심리적 증상으로 연결된다고 밝혀냈다. 즉, 자기방어적 양가성만이 심리적 증상을 예언했으며, 오히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심리적 증상과 부족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윤수지

(2014)와 윤달아(2012)는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중 자기방어적 양가성요인과 이성관계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고, 윤달아(2012)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요인과 대인관계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두 하위요인의 다른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른 매개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매개변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성별의 차이, 두 하위요인의 차이, 매개 변인에 따른 영향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최종 모형에서 산출된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부모화가 이성관계 완벽주의에 간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자에게 자신의 완벽주의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부분이 자신의 가정환경을 중요하게 꼽은 연구 결과(Slancy & Ashby, 1996)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Flynn, Hewitt, Flett과 Weingerg(2001)이 Hewitt와 Flett MPS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가정환경 변인과 관련이 있는 유일한 차원으로 밝혀졌으며, Findlay와 Watts(199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Hewitt와 Flett MPS와 가족 변인 간의 상관을 조사한 결과 완벽주의가 부모의 과보호

낮은 부모의 돌봄,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가족의 건강성과 관련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희생 책임, 의무에서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가족이 살아남는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Shannon, 2014) 성인이 되어, 이상적인 이성관계를 위해서는 파트너가 자신에게 완벽하길 기대할 것이라는 생각, 자신이 그 기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 파트너도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완벽해져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불안정 성인애착 중 애착불안은 이성관계 완벽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애착 회피는 이성관계 완벽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애착불안은 완벽주의와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애착회피는 완벽주의와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을 나타낸 연구(박소현, 2012; 이현정, 2010)와 애착불안이 부정적 완벽주의로 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힌 연구(조화진, 서영석, 2011)와 같은 결과이다. 즉,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은 타인과 늘 심리적 거리를 두어(Feeney & Collins, 2004) 자신의 애착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완벽하길 요구하거나 파트너가 자신에게 완벽하길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압력을 방어하고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애착회피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도 이 정서들조차도 밖

으로 드러내지 않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착회피 성향이 이성관계 완벽주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은 조심스럽다.

셋째,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정서표현 양상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이중 매개를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직접적으로도 이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많은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완벽주의자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제안하였다(Flett & Hewitt, 2002).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며 상대적으로 부과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김나영, 2014)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성관계 완벽주의자들은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바와 파트너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실제로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끼면서 이성관계에 불만족감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간접 경로를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완벽주의는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거나 손상시킴으로써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완벽주의가 그 방향이 자기를 향하든, 대인관계를 향하든 관계없이 개인 내적 병리를 조장하면서 간접적으로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lett & Hewitt, 2002)는 이론을 지지하며, 부정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를 표현하는데 갈등이 많다고 나타

난다고 밝힌 연구(김정화, 2011; 남보라, 2006; 이은아, 2009),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모든 정서표현에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밝힌 연구(신자은, 2002)와 같은 맥락이다.

이성관계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자신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파트너로부터 인정,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파트너에게 거부당할까 두려워 중요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갈등을 초래할 것 같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욕구의 표현을 억누르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표현해야 될지 말지 갈등하거나 표현했던 것에 대해 반추하면서 후회하게 된다(한경희, 2012). 결국, 이렇게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대개 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Emmons & King, 1988), 정서적 갈등을 높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적인 소통과 의존, 자기주장 등을 어렵게 한다(Emmons & Colby, 1995). 또한, 파트너에게 완벽할 것을 기대하고 파트너가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성관계 완벽주의자들은 파트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완벽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파트너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망감을 피하려는 경향에 의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성관계 사이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자기개방이 타인과의 친

밀한 관계의 발달과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때(Collins & Miller, 1994), 이성관계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심할수록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파트너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애착불안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현수(2013)연구에서 애착불안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는 경로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데,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부적응적일 수 있고(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 표현을 하더라도 주로 부정적 정서에 몰두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표현은 낮고 타인의 거부가 두려워 부정적 정서 또한 표현하기 어려워하고(류수정, 2010) 친밀해지는 관계를 두려워하여 이성관계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모형분석에 대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애착불안 성향에 비해 애착 회피 성향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의 차이로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애착불안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과잉활성화 전략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

기보고를 증폭시키는 반면, 애착회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활성화 전략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보고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변인에 미치는 애착회피 성향의 영향이 실제보다 더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김혜원, 2015).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회피 성향을 지닌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감정절제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자기보고가 아닌 관찰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애착회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감정적 동요와 공격적 태도가 확인되었다(Cassidy & Shaver, 2008; Toth & Cicchetti, 1996). 또한, 애착회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중립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지만 생리학적인 부분을 측정하면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Roisman, Tsai, & Chiang, 2004), 이들이 직접 보고하는 바로는 명백히 불안 수준은 낮으나 TAT나 신체화 반응 같은 보다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갈등과 불안이 명백히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Mikulincer & Orbach, 1995).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애착회피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억압 혹은 부인 및 비활성화 전략 등의 대처기제로 내·외적 상황에 대한 각성이 무디어져 있거나(류수정, 2010), 대처기제로 과하게 억압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Gross & John, 2003) 이로 인해 자기보고식으로 감정 관련 변인을 측정할 때 그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애착불안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다 강렬하게 경험하고, 부정적

인 기억의 망에 보다 잘 접근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억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Gillath, Bunge, Shaver, Wendelken, & Mikulincer, 2005), 결과적으로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보다 의식적으로 보고하는 감정 관련 값이 더 크게 보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를 양적 연구를 통해 해석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 내릴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상담의 임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관련 질적 연구(Shannon, 2014)를 통해 밝혀진 부모화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들에서 추출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를 통해 부모화 경험으로 낮아질 수 있는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밝혀 이성관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모화 경험으로부터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형성되는 애착의 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이는 애착불안, 애착회피가 각각 다른 기제를 통해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화 경험을 한 내담자 상담시 애착패턴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상담전략을 짤 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모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20~30대 남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20대가 81%를 차지하였고, 지역도 인천, 서울,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화 경험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상 집단에서도 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력, 지역, 연령, 증상 등의 특성을 다양화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분석이 포함시켜 과거의 관계에 대한 지각과 인지적 평가가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강영희, 2013). 또한, 이성관계 사이에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패턴은 연애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으나 연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연애기간과 현재 이성교제 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자료 수집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자기보고 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응답자들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애착회피 성향을 보이는 참여자의 방어적 특징 때문에 연구의 핵심적 변인인 애착회피의 영향을 받는 변인들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참고문헌

- 강영희 (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 강지희, 최명선 (2009).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 성향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6(1), 121-138.
- 공인원 (2014). 대학생의 부모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23-139.
- 김경자 (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노수 (2014). 부모화 경험이 남녀 기독교인 대학생의 이성 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영 (2010). 여자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

- 관계 만족도: 거부민감성과 외로움을 매개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09).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자기개념 및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3). 남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 조망수용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 (1997).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교제 중인 미혼남녀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화 (2011).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인 (2014). 부모화와 자아분화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2015). 부모의 성인애착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 결혼불만족의 매개효과: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보라 (2006). 완벽주의가 정서표현갈등과 갈등관리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익상 (2002). 한국 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만족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수정 (2010). 애착에 따른 정서경험,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소희 (2014). 지각된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 박소현 (2012). 성인애착, 역기능적 완벽주의, 정서억제가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2010). 중학생의 부모화 경험성과 부모양육태도지각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 진 (2013).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주 (2016). 부모화, 성인애착과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 관련 변인의 구조모형 검증: 정신화의 조절효과.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은주, 이지연 (2010).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화 경험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1(1), 335-354.
- 신자은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성향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험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양혜라 (2011). 부모화된 성인의 대인관계 패턴 분석: 사회적 행동의 구조분석(SASB) 모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주현 (2000).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달아 (2012). 정서표현 양가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지 (2014). 성인 초기 미혼 여성의 심리적 부모화와 이성관계만족도: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1).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지 (200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이성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아 (2009).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완벽주의 및 정서표현 양가성과의 관계. 청소년 문화포럼, 22, 72~106.
- 이주일, 민경환, 황석현, 한정원 (1997). 정서의 체험 및 표현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117-140.
- 이현아 (2011).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정서인식, 정서표현신념, 정서표현양가성, 정서조절방략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2010).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인애착, 이상 섭식행동 경향성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애경 (200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수준에 대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정주, 김정모 (2011). 정서자각에 기초한 정서표현 훈련이 정서자각, 정서표현, 정서표현의 억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3(4), 861-884.
- 장휘숙 (2012). 성인발달 및 노화 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현수 (2013). 심리적 부모화가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 성인애착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류원정 (2003). 아동과 어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및 성격할 고정관념.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3(1), 223-224.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 중심으로 한

- 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현정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 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 (2013).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자아분화가 우울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화진,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지미선, 김신영 (2011). 성장기의 부모화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4, 53-66.
- 최명선, 강지희 (2008). 청소년의 아동기 부모화 경험이 완벽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2008(1), 164.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 (1994). 부자유친 성장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5-82.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최해연, 민경환, 이동귀 (2008). 정서표현신념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역할. 상담학연구, 9(3), 1063-1080.
- 통계청 (2014).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http://www.kostat.go.kr>. 에서 2015년 12월 30일 인출.
- 한경희 (201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선영 (2005). 부모 애착과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ndersson, P., & Perris, C. (2000). Attachment style and dysfunctional assumptions in adult.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7(1), 47-53.
- Argyle, M. (1997). Is happiness a cause of health? *Psychology & Health*, 12(6), 769-781.
- Barnett, B., & Parker, G. (1998). The parentified child: Early competence or childhood deprivation?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Review*, 3(4), 146-155.
- Ben-Ari, A., & Lavee, Y. (201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hift from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o dyadic attribut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2), 277-284.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Hagerstown, MD: Harper & Row.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adshaw, J. (2006). 가족 :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오제은(역). 서울: 학지사. (원본발간일, 1990)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Press.
- Burns, D. D. (1983).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 *Family Process*, 41(3), 375-388.
- Cassidy, J., & Shaver, P. (2008).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hase, N. 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London: Sage.
- Chase, N. D. (2001). Parentified children grow up: Dual patterns of high and low functioning. In B. E. Robinson, & N. D. Chase (Eds.), *High-performing families: Causes, consequences, and clinical solutions*(pp. 157-189).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Cole, P., & Woolger, C. (1989). Incest survivors: The rela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and their own parenting attitudes. *Child Abuse and Neglect*, 13, 409-416.
-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 457-475.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Demir, M. (2008). Sweetheart. You really make me happy: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happines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Happiness Study*, 9(2), 257-277.
- DePaulo, B. M. (1992). Nonverbal behavior and self-presen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203-243.
- Descutner, C. J., & Thelen, M. H.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ear-of-Intimacy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3(2), 218-225.
- Dozier, M., & Kobak, R. R. (1992). Psychology and adolescent attachment interviews: Converging evidence for repressing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63(6), 1473-1480.
-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A: Addison-Wesley.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Emmons, R. A., & King, L. A. (1988). Conflict among personal strivings: Immediate and long-term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40-1048.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12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eney, J. A. (1995). Adult attachment and emotional control. *Personal Relationships*, 2, 143-159.
- Feeney, B. C., & Collins, N. L. (2004). Interpersonal safe haven and secure base care giving processes in adulthood. In W. S. Rholes, &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300-338). New-York: Guilford Press.
- Findlay, B., & Watts, S. (1998). Psychological correlates of perfectionism[Abstract].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0, 67.
- Flett, G. L., & Hewitt, P. L. (Eds.). (2002).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ynn, C. A., Hewitt, P. L., Flett, G. L., & Weingerg, J. (2001). *Perfectionism, achievement stress, and physiological reactivit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87-103.
- Gillath, O., Bunge, S. A., Shaver, P. R., Wendelken, C., & Mikulincer, M. (2005). Attachment-style differences in the ability to suppress negative thoughts: Exploring the neural correlates. *Neuro Image*, 28, 835-847.
- Gottman, J. M. (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or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6-15.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Halgin, R. P., & Leahy, P. M. (1989). Understanding and treating perfectionistic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222-225.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McKay.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oper, L. (2007).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and family systems theory to the

- phenomena of parentification.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5(3), 217-223.
- Jacobvitz, D. B., & Bush, N. (1996). Reconstru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arent-child alliances, personal distress, and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732-743.
- Jerome, E. L., & Liss, M. (2005). Relationships between sensory processing style, adult attachment, and coping.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8(6), 1341-1352.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 Thirkield, A. (1999).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FRS-A)*.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 Katz, J., Petracca, M., & Rabinowitz, J. (2009). A retrospective study of daughters' emotional role reversal with parents, attachment anxiety, excessive reassurance-seeking, and depressive symptom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 185-195.
- Kelly, C., Huston, T. L., & Cate, R. 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2(2), 167-178.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54-877.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ll, H. L., Moiduddin, E., Henderson, J., Goesling, B., & Besculides, M. (2010). What do we know about the link between marriage and health? *Journal of Family Issues*, 31(8), 1019-1040.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6(5), 934-949.
- Lavee, Y., & Ben-Ari, A. (2004). Emotional expression and neuroticism: Do they predi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620-627.
- Levinson, D. J., Darrow, D., Klein, E., Levinson, M., & McKee, B. (1978).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W.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rtens, M. P. (2005).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3), 269-298.
- Martin, M. T. (1995). Mother-daughter relations in divorced families: Parentification and internalizing and relationship problem (Doctoral dissertation). Retrieved August 31, 2014, from Dissertations & Theses. (AAT 9600428).
- Martin, J. L., & Ashby, J. S. (2004). Perfectionism and fear of intimacy: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2(4), 386-374.
- Matte, M., & Lafontaine, M. F. (2007). *The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 Matthews, K. A., & Angulo, J. (1980). Measurement of the type a behavior pattern in children: Assessment of children's competitiveness. impatience-anger. and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1, 466-475.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17-92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o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Mongrain, M., & Vett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545-555.
- Rice, K. C.,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2), 238-250.
- Robinson, B. E. (2000). Workaholism and family functioning: A psychological profile of family members. *High-Performing Families: Causes, Consequences, and Clinical Solutions*, 3-22.
- Roisman, G. I., Tsai, J. L., & Chiang, K. H. S. (2004). The Emotional integration of childhood experience: Physiological, facial expressive, and self-reported emotional response during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776-789.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Russell, D. W., Kahn, J. H., &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earle, B., & Meara, N. M. (1999). Affective dimensions of attachment styles: Exploring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gender, and emotional experi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2), 147-158.
- Sessions, M., & Jurkovic, G.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Dr. Gregory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Georgia, 30303.
- Shannon N. D. (2014). *Children as adults: A phenomenological inquiry into the process of parentification*. Texas Tech University.

- Shea, A. J., Slaney, R. B., & Rice, K. G. (2006). Perfectionism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dyadic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9(2), 107-125.
- Shiner, R. L., & Masten, A. S. (2002). Transactional links between personality and adaptat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80-588.
- Shiota, M. N., Campos, B., Keltner D., & Hertenstein, M. (2004). Positive emotion and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Regulation of Emotion*. 127-15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laney, R. B., & Ashby, J. (1996). Perfectionists: Study of a criterion grou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4), 393-398.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13-823.
- Stein, J. A., Riedel, M., & Rotheram-Borus, M. J., (1999). Parentification and its impact on adolescent children of parents with AIDS. *Family Process*, 38, 193-208.
- Stutzer, A., & Frey, B. S. (2006). Does marriage make people happy, or do happy people get married?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5(2), 326-347.
- Teyber, E. (2011).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점
근. 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미(역). 서울: 센케이저리닝크리야. (원본 발간일, 2011)
- Thomas, N., Stainton, T., Jackson, S., Cheung, W. Y., Doubtfire, S., & Webb, A. (2003). 'Your friends don't understand': Invisibility and unmet needs in the lives of young carer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8(1), 35-46.
- Toth, S. L., & Cicchetti, D. (1996). Patterns of relatedness,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erceived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32-41.
- Weiss, R. S. (1982).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 Wells, M., & Jones, R. (1998). Relationship among childhood parentification, splitting, and dissociation: Preliminary finding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331-339.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7.
- West, M. L., & Keller, A. E. R. (1991). Parentification of the child: A case study of Bowlby's compulsive care-giving attachment patter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3), 425-431.

1 차원고접수 : 2016. 01. 08.

수정원고접수 : 2016. 02. 13.

최종게재결정 : 2016. 03. 02.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ification, Adult Attachment, and Early Adulthoo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Song, Eun-Ju

Lee, Jee-yon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parentification, adult attachment,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fear of intimacy of early adulthood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study subjects were 576 men and women in early adulthood. As a result,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expressed in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decreased as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fear of intimacy were felt with the formation of attachment anxiety caused by psychological parentification. Seco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decreased 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except for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and fear of intimacy were felt with the formation of attachment avoidance caused by psychological parentification. The results signify that the effects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ake on a different character according to the form of attachment formed from the parentification experience. Based on the examination, this study discusses psychotherapeutic counseling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words: parentification, adult attachment,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fear of intimacy,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